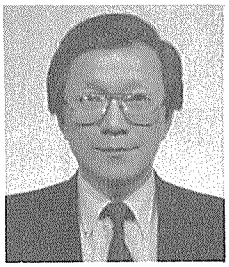

電子工業 長期發展 基盤 確立의 해

李 漢 春
商工部 電子電機工業局長

乙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電子工業發展에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所望이 成就되기를 祝願한다.

그동안 우리 電子工業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와 같이 매년 生産, 輸出, 雇傭 등 양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近年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高集積半導體 등 첨단기술 製品을 위주로 한 新製品의 開發과 輸出增大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현저한 發展相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發展이 있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電子業界에 종사하는 企業人의 왕성한 意慾과 創意力 그리고 技術者, 技能工 등 전 종업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와 같이 人口가 조밀하고, 賦存資源이 빈약한 국가에 있어서 지속적인 成長을 이루기 위해서는 輸出에 크게 依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輸出도 國際比較優位를 지닐 수 있는 부문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今年度 정부의 經濟運用計劃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經濟成長率 7.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輸出이 적어도 330億弗, 즉 前年對比 13% 이상의 伸張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고 이중에서 우리 電子部門이 맡은 額數는 전체의 19%인 62億弗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輸出目標는 일견 쉬운 과제로는 생각되지 않으나 우리 經濟 전체의 成長과 관련하여 電子業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큰 한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현좌표를 생각해보면 그간의 年平均 25%의 급신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世界의 競爭國들과는 輸出面에서나 技術, 마케팅 등에 있어서 많은 隔差를 보이고 있으며 가까운 臺灣과 비교해 볼 때도 輸出規模에 있어 약 75%에 해당하는 劣勢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의 電子工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 기회에 몇가지 생각되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電子工業의 長期發展을 위해서는 官民 모두 開拓者 精神에 입각하여 創意力을 最大限으로 발휘하여야 하겠다. 電子工業은 技術開發 속도가 빠르며 應用開發의 여지가 어느 분야보다도 크기 때문에 새로운 製品의 開發, 새로운 需要의 창출을 위해 企業은 부단히 研究하고 市場을 개척하여야겠으며 政府는 企業이 안심하고 投資 및 개발할 수 있도록 投資環境의 造成, 長期비젼의 제시와 새로운 政策의 發掘 등 행정적 支援技能을 꾸준히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政府는 이미 81年度에 學界와 業界의 수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電子工業高度化計劃을 설정하고 장기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시행 4次年度에 접어든 금년에는 그간의 經濟社會의 여건변동과 90년대를 향한 準備를 다지는 의미에서 電子工業의 設備能力, 工業立地, 技術水準, 産業構造 등 종합적인 中間評價와 함께 이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 電子工業의 發展指標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종 행정적 支援施策을 짜임새있게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高集積半導體, 마이크로 프로세서, 光

通信 시스템 등 소위 High-Tech 부문에서의 新製品開發과 海外市場 開拓 努力이 배가되어야겠다. 256KDRAM의 量産體制가 금년중에 확립되고 32Bit 컴퓨터 64KSRAM 등 첨단기술 제품의 開發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금년에는 家電製品 중심의 생산 및 輸出構造에서 보다 더 高附加價値的인 産業用 電子機器 및 부품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産業構造를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야겠다. 아울러 情報化社會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産業의 본격적인 참여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電子分野의 技術開發·投資의 확대를 기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政府·業界·學界 및 각종 연구소의 情報交流 등 開發力量의 總合이 이루어져야겠다.

세째, 國際収支 改善을 위한 電子工業部門의 기여도를 보다 높여야겠다. 현재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인 國際収支赤字 문제는 어느 한 産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각 産業部門別로 국산화 즉 輸入代替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모여져서 國家全體의 貿易収支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電子部門은 그간 産業構造의 특수성으로 完製品의 輸出增大는 곧 이에 소요되는 部品의 비례적 輸入增大를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부품의 國産開發로 貿易収支를 개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內需用의 경우는 수요자와 供給者 모두 國産開發 및 사용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상당한 輸入代替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정부는 앞으로 國産化問題는 國際収支改善 次元에서 汎部處間 사업으로 推進할 방침을 갖고 있으며 특히 政府購買所要가 큰 通信網 및 政府電算網事業에 이것이 반영되리라 본다.

네째, 우리 電子業體들이 국내외에서의 相互協力을 증진하여야겠다. 그간 우리는 이의 重要性을 모두가 역설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協力보다는 過當競爭에 치우친 점이 많았다는 것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大企業間의 協力 뿐만 아니라 大企業과 中小部品業體間의 協力도 改善되어야 할 소지가 많으며 나아가서 선의의 경쟁에 의한 共同發展이라는 관점에서 技術開發,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公正競爭의 풍토를 조성하여야겠다. 때마침 家電業界間 公正去來規約이 制定되어 금년부터는 보다 나은 協力의 장이 열리리라 기대되며 政府에서도 이의 효율적 운용을 적극 後援할 계획이다.

다섯째, 漸高하는 先進諸國 保護貿易主義的 성향에 대비하여 기존의 輸出戰略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國際化時代에 부응하는 通商政策的 차원에서의 海外市場 管理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 지난 한해 電子業界의 가장 큰 현안문제였던 美國의 컬러 TV 반덤핑 提訴는 관련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 주었으나 한편 많은 教訓을 남겨 주기도 했다. 이제는 과거의 低價, 物量攻勢에 의한 輸出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진정한 의미의 國際競爭力을 쌓아서 어느 市場에에서도 떳떳하게 경쟁을 하여야겠다.

輸出 戰略의 개선과 아울러 海外 電子展, 시카고電子部品 常設展示場 등 政府支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內需市場에 있어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經費節減 노력이 강화되어 消費者保護, 새로운 需要創出을 이루는 한편 덤핑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80年代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經濟運用의 基本方針인 開放經濟體制의 흐름에 맞추어 업계의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輸入制限에 의한 國內市場保護, 特定産業의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대응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금년 한해는 이러한 바램이 이루어져서 電子工業이 획기적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업계와 政府 그리고 有關機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電子業界와 電子工業振興會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